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공군 간부의 구성과 정치연합체제의 구축

김선호(경희대학교)

이 글은 새로 발굴한 노획문서를 토대로 북한 공군 간부의 역사적 실체를 해명하였다. 북한 비행사단은 창설 당시 3개 연대와 2개 기술대대로 편성되었다. 이 글은 노획문서를 통해 비행사단 간부 중 총 65명의 이름·경력·직무를 최초로 확인하였다. 이들은 사단·연대의 지휘부와 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의 중대장 이상을 맡고 있던 지휘관들이다.

비행사단의 주요간부는 해방 이후 정치질서를 주도한 북한정치세력과 이들이 육성해온 평양학원 졸업생이 맡았다. 비행사단 지휘부는 조선의용군 출신, 일본군 출신, 고려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비행사단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한 채 한반도의 무력통일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정치연합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비행사단은 조선의용군 출신의 지휘와 고려인의 정치사상적 지도 아래 일본군 출신에 의해 육성되었다.

추격기연대장·습격기연대장·교도연대장과 대대장 6명은 모두 일본군 출신이었다. 또한, 비행사단 연대간부는 노동자·빈농·사무원을 주축으로 구성되었고, 노동당원과 평양학원 졸업생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북조선로동당이 지향해온 계급정책의 결과였다. 그리고 노동당은 비행사단의 노동당원을 통해 공군에 대한 당적 통제와 영향력을 관철시켰다. 이 같은 비행사단의 군적·계급·당적은 주요간부를 맡고 있던 일본군 출신의 정치적 동요를 차단하고 사상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내부적 동력이었다.

주제어: 북한 공군, 정치연합체제, 비행사단, 습격기연대, 추격기연대, 평양학원, 북조선로동당, 신의주항공대, 일본군 출신, 한국전쟁

1. 머리말

해방 직후 북한정치세력에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당·정권기관·군대에 필요한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일이었다. 북한에서 간부문제는 처음부터 “그 나라의 운명을 걸머지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간부교육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담당할 민족간부를 양성하고자 했다. 간부양성은 평양학원,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조선공산당 중앙당학교, 중앙정치간부학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¹⁾ 이러한 노력으로 1946년 6월 현재 중앙에서 설립한 학교만 해도 ‘중앙정치간부학교’, ‘보안간부학교’ 등 45개가 넘었다.²⁾ 이 중에서 군사간부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는 평양학원(平壤學院)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北朝鮮中央保安幹部學校)였다. 평양학원은 ‘향후 건설될 정규군대의 핵심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었고,³⁾ 중앙보안간부학교는 ‘군 초급간부 양성기관’이었다.⁴⁾

비행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은 1945년 12월 15일 조선항공협회(朝鮮航空協會)를 조직해 향후 창설될 ‘조선항공대’의 기간요원을 양성하기 시작했다.⁵⁾ 또한

-
- 1)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서울: 선인, 2003), 471~472쪽.
 - 2) 金日成,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委員會 結成에 對한 報告,” 1946.1, 北朝鮮勞動黨 宣傳煽動部, 『金日成將軍重要論文集: 民主朝鮮自主獨立의 길』(평양: 勞動出版社, 1947.3.10).
 - 3) 김일성, 『김일성전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76쪽.
 - 4) “보안간부학교 설립에 관한 건,” 『北韓關係史料集』, 5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665쪽.
 - 5) 民主朝鮮社 編, 『解放後四年間の 國內外重要日誌(增補版)』(평양: 民主朝鮮社, 1949), 16쪽; 김일성, “새 조선의 항공대를 결성하자”(1949.11.29), 『김일성전집』, 제2권, 370~371쪽.

해방 직후부터 당 차원에서 항공인력을 관리했다. 북조선공산당은 향후 비행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군 비행사 출신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었다.⁶⁾ 북조선공산당은 1946년 3월에 본격적으로 비행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평양학원에 항공반(航空班)을 신설했고,⁷⁾ 민간항공단체인 신의주항공대(新義州航空隊)를 평양학원으로 흡수하였다.⁸⁾ 이후 평양학원에서는 본격적으로 비행간부를 양성했다.

평양학원의 항공부대는 1948년 9월 9일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 예하 항공대대로 개편되었고, 항공대대는 항공연대를 거쳐 1949년 12월 항공사단(航空師團)으로 증편되었다.⁹⁾ 항공사단의 명칭은 1950년 1월 비행사단(飛行師團)으로 개칭되었다.¹⁰⁾ 북한 공군은 공식적으로 창설되지 않은 채, 민족보위성 직속 비행사단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북한정치세력은 평양학원 이래 여러 경로를 통해 비행간부를 양성하였고, 여기서 양성된 간부들이 비행사단의 간부로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행사단의 간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비행사단의 간부는 사단장 왕련, 부사단장 리활, 참모장 김만용이다.¹¹⁾

기존 연구 중에서 비행사단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성과는 없다. 다만, 인민군 연구의 일환으로 비행사단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이

6) 기광서, “북한 무력 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研究』, 28권 3호(2004), 220쪽.

7) 손영종 외, 『조선통사』, 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354쪽.

8) 손영종 외, 위의 책, 675쪽.

9)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과정을 통해 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현대북한연구』, 제15권 2호(2012년 8월), 276~278쪽.

10) 각주 26번을 참조바람.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94쪽;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73쪽.

확인되었다. 비행사단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방부에서 진행되어왔다.¹²⁾ 특히, 국방부는 최근 공간사를 통해 비행사단의 기본편제, 부대 주둔지, 비행기 보유현황, 훈련과정을 밝혀냈다.¹³⁾ 장준익과 김용현은 조선인민군 창군과정의 일환으로 북한 공군의 창설과정에 대해 연구하였고,¹⁴⁾ 최완규는 북한 공군의 창설시기를 시대별로 정리하였다.¹⁵⁾ 김광수는 노획문서를 바탕으로 비행사단의 편제와 비행기·조종사 보유현황을 밝혀냈고,¹⁶⁾ 이신재는 소련이 북한 공군에 지원한 내용을 통해 조기궤멸의 원인을 분석하였다.¹⁷⁾ 기존 연구를 통해 비행사단의 창설일, 항공사단의 기본편제, 사단장·부사단장·참모장, 조종사의 훈련과정, 비행기·조종사의 보유현황 등이 밝혀졌다.

기존 연구의 관심은 주로 북한 공군의 편제·무기·장비문제에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북한 공군의 간부문제는 거의 해명되지 않았다. 이 글은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공군 간부의 역사적 실체를 해명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한다. 그 이유는 역사적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12) 국방부의 연구성과는 주로 공식전사에 집대성되었다. 대표적인 공식전사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공군본부 정훈감실, 『空軍史』(계룡: 공군본부, 19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創軍前史』(계룡: 육군본부,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293~296쪽.

14)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울: 서문당, 1991), 34~37, 45~47쪽;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8), 33~62쪽.

15)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렴과정』(서울: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1991), 139~176쪽.

16)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74쪽.

17) 이신재, “한국전쟁 이전 소련의 북한 공군지원 고찰(1945~1950),” 『현대북한연구』, 제19권 1호(2016).

향후 학술연구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이자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 글은 비행사단의 간부구성과 간부인명을 밝힘으로써 인민군·한국전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이 글은 비행사단 간부의 해방전 경력과 해방후 경력을 해명할 것이다. 특히, 간부의 나이, 성분(成分), 학력, 군적(軍籍), 당적(黨籍) 등을 분석해 비행사단 간부의 정치적·군사적 특징을 밝힐 것이다. 셋째, 이 글은 새롭게 확인된 비행사단 간부의 경력을 바탕으로 비행사단에 구축된 정치연합체제¹⁸⁾의 특징을 해명할 것이다.

이 글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미군노획문서이다. 그중에서도 비행사단 대열과에서 생산한 『일보(日報)』와, 항공연대 대열과에서 생산한 『제반신청서철』을 주자료로 활용하였다.¹⁹⁾ 두 자료에는 비행사단에서 생산된 각종 통계·신청서·증명서가 들어 있다. 추격기연대 간부의 경력은 주로 『평강이동인원』을 활용하였고,²⁰⁾ 습격기연대 간부의 경력은 주로 『련대장 의하 통계표』를 활용하였다.²¹⁾ 이상의 자료는 북한 공군이 당대에 생산한 비밀내부문서로서 이 글에서 처음 활용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새롭게 이름·경력·직무가 확인된 공군 간

18) 이 글에서 정치연합체제는 특정 정치세력이 지도체제를 장악하지 못한 채, 각 정치세력이 당·정권기관·군대에서 국제·국내정세에 따라 공동의 목표 아래 연합해 있는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전쟁 이전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세력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 출신, 고려인(Kopë capam), 국내공산주의자, 국내민족주의자를 들 수 있다.

19) 師團대열과, 『일보』(1950.2.28), NARA(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 RG(문서군) 242, SA(선적번호) 2009, Box(상자번호) 2, Item(문서번호) 117;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57(이하 출처 생략).

20) 추격기연대, 『평강이동인원』(1950.4), NARA, RG 242, SA 2010, Box 2, Item 47.11(이하 출처 생략).

21) 제861군부대, 『련대장 의하 통계표』(1950.3), NARA, RG 242, SA 2010, Box 2, Item 47.10(이하 출처 생략).

부는 총 65명이다.

2. 비행사단 주요지휘관의 구성과 정치세력의 분포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은 1948년 2월 8일에 창설되었다. 북조선로동당(北朝鮮勞動黨)은 인민군 창설 직후 평양학원 항공대대를 인민군 공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평양학원 항공대대는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과 동시에 평양학원에서 독립해 민족보위성 예하로 편입되었다.²²⁾ 이로써 평양학원 항공대대는 군사학교에서 민족보위성 예하의 정규군으로 개편되었다. 항공대대의 전력은 소련군의 철수를 앞둔 1948년 10월부터 급격히 증강되었다. 항공대대는 이를 바탕으로 1948년 11월 1일 항공연대로 증편되었고,²³⁾ 항공연대는 1949년 12월 ‘항공사단’으로 승격되었다.²⁴⁾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북한 공군의 명칭은 항공사단으로 알려져 있다.²⁵⁾ 그러나 노획문서에 따르면, 항공사단은 1950년 1월 17일 명령 0018호를 하달해 명칭을 ‘제11비행사단’(이하 비행사단)으로 변경하였다.²⁶⁾

그동안 비행사단의 편제는 일부만 확인되었다. 비행사단은 추격기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 698~699쪽.

23) 기존 연구에서는 항공연대가 1949년 1월에 창설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항공연대는 1948년 11월 1일에 창설되었다.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과정을 통해 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277쪽.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 699쪽; 제855군부대, 『(비밀) 개인비행수첩: 최현옥』, NARA, RG 242, SA 2007, Box 8, Item 13E(이하 출처 생략).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293쪽.

26) 제56추격기련대참모부, “번호 및 대호규정에 관하여(1950.1.17),” 제2대대, 『(극비) 상부지시문철』(1950.5), NARA, RG 242, SA 2010, Box 3, Item 164.

연대(追擊機聯隊), 습격기연대(襲擊機聯隊), 교도연대(教導聯隊), 공병연대(工兵聯隊)로 편제되었고, 연대는 3개 대대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져 왔다.²⁷⁾ 새롭게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1950년 1월 25일 현재 비행사단은 3개 연대와 2개 대대로 편성되었다. 예하연대는 ‘추격기연대, 습격기연대, 교도연대’가 있었고, 예하대대는 ‘제1기술대대, 제2기술대대’가 있었다.²⁸⁾

현재까지 비행사단의 주요지휘관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항공사단 사단장’을 왕련(王連), ‘항공사단 부사단장’을 리활(李闊)로 파악하고 있다.²⁹⁾ 리활의 정확한 직무는 ‘비행부사단장(飛行副師團長)’이다.³⁰⁾ 비행사단 문화부사단장(文化副師團長)은 유성걸(俞成傑)이었고,³¹⁾ 비행사단 참모장은 김만영(金萬永)이었다.³²⁾ 비행사단 예하부대의 간부는 다음과 같다. 추격기연대의 연대장은 서주필, 문화부연대장은 리주학이었다. 추격기연대에는 비행부연대장도 있었으나 이름은 알 수 없다. 참모장은 김남학이었다. 예하부대를 보면, 제1대대장은 현용서(玄龍瑞), 제2대대장은 박경옥(朴敬玉), 제3대대장은 안성득이었다.³³⁾

습격기연대의 연대장은 최현옥(崔賢玉), 문화부연대장은 정중우였

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296쪽.

28) “人員統計表(1950.1.25),” 師團대열과, 『日報』(1950.2.28).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 699쪽.

30) 최현옥의 『개인비행수첩』에는 리활이 직접 서명한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 리활의 직무가 ‘비행부사단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855군부대, 『(비밀) 개인비행수첩: 최현옥』.

31)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서울: 경인문화사, 2006), 500쪽.

32) 제855군부대, 『(비밀) 개인비행수첩: 최현옥』.

33) 추격기연대, 『(극비) 연대간부명단』(1950.1.1), NARA, RG 242, SA 2010, Box 2, Item 47.4.

다. 습격기연대에는 비행부연대장이 없었고, 참모장은 있었으나 이름을 알 수 없다. 예하부대를 보면, 제1대대장은 리영일(李英一), 제2대대장은 강대용(康大鏞), 제3대대장은 장연진(張然鎭)이었다.³⁴⁾ 교도연대의 연대장은 허민국(許民國)이었고, 문화부연대장은 지정심이였다.³⁵⁾ 참모장은 김한옥이었다가³⁶⁾ 최희춘으로 교체되었다. 예하부대를 보면, 제1대대장은 리흥부(李興富)였고, 제2대대장은 알 수 없다. 제3대대장은 김영곤이었다가,³⁷⁾ 교도연대 참모장으로 있던 김한옥이 임명되었다.³⁸⁾ 그 외 2개 기술대대의 간부는 확인할 수 없다.³⁹⁾

이 글에서는 사단본부와 3개 연대의 간부에 한정해 그들의 경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한 비행사단 주요지휘관의 구성과 경력을 종합해보면 <표 1>과 같다.

비행사단의 주요지휘관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되었다. 왕련은 팔로군(八路軍) 출신이며, 리활은 일본군 출신이다. 해방 직후 신의주항공대에서 리활은 항공대장이었고, 왕련은 창설요원이었다. 그러나 신의주항공대가 평양학원으로 흡수되면서 두 사람의 지위는 역전되었다. 왕련이 팔로군 출신이라는 점과, 리활이 일본군 출신이라는

34) 정중우, “군관상학조 명단 제출에 대하여(1950.1.7),” 조선인민군 861군부대 문화부, 『잡서류철』(1950.5), NARA, RG 242, SA 2010, Box 미상, Item 74.

35) 항공사단 교도연대, 『털락병명단』,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33(이하 출처 생략).

36) 허민국·김한옥, “일보표(1950.2.2),” 師團대열과, 『日報』(1950.2.28).

37) 허민국·부부대장 최희춘, 『(비밀) 명령 제248호: 군관들에 대한 군사귀정 및 제식체육훈련 실시에 관하여』(제567군부대 참모부, 1950.6.10), NARA, RG 242, SA 2007, Box 10, Item 39.

38) 김한옥·리명록, 『일일근무명령』(교도련대 三大隊참모부, 1950.6.25), NARA, RG 242, SA 2007, Box 10, Item 61.

39) 또한, 이 글에서 한자명이 병기된 인물 외에 나머지 인물은 한자명을 확인할 수 없다.

<표 1> 비행사단 주요지휘관의 구성과 경력

직무	성명	생년 월일	출생 지역	학력	해방전 경력	해방후 경력	출처	
사단장	왕련 (王連)	1912	함북	소련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졸업 (1939)	1931년 동북인민혁명 군 밀산유격대원 소 련 츠랴로브항공학교 졸업, 1940년 킬로군 항일연합군 비행과장, 중국공산당원	1945년 10월 신의주항공대 창설요원, 1946년 6월 평 양학원 항공과장, 1948년 9 월 항공대대장, 1948년 11 월 항공연대장	42)	
부사단장	리활 (李闊)	1918	평북 염주	동경지포공 업전문학교 졸업(1941)	일본 나고야항공학 교 졸업, 일본 해군 축타비행사	1945년 10월 신의주항공대 대장, 1946년 6월 평양학 원 항공과 부과장, 1948년 9월 항공대대 부대대장, 1948년 11월 항공연대 기 술부사단장, 노동당원	43)	
문화 부사단장	유성길 (俞成傑)	1920. 3.13	소련 연해주	소련 사마르칸트 사범대학 졸업(1942)	1942년 소련 타쉬켄 트주 고등중학교 어 문학 교원 겸 교무 주임, 1945년 소련 공산당 입당	1945년 11월 소련군 민정 사령부 통역관, 1946년 5 월 평양학원 노어교원 겸 부교장, 1948년 9월 항공 대대 문화부대대장, 1948 년 11월 항공연대 문화부 연대장	44)	
참모장	김만영 (金萬永)				조선의용군 대원	1948년 11월 항공연대 참 모장	45)	
추 격 기 연 대	연 대 장	서주필	1927. 10.28	함남 함흥	중학교 졸업	일본 소비15기 을	1946년 10월 평양학원 항 공반 2기생, 1948년 11월 항공연대 4세대장(추정)	
	문화 부연 대장	리주하	1925. 3.20	함북 청진	소학교 졸업		1946년 10월 평양학원 항 공반 2기생, 1948년 11월 항공연대 문화부대대장(추 정)	
	참 모 장	김남하	1927. 7.20	함북 경성	소학교 졸업		1946년 5월 5일 평양학원 항공반 입학, 1948년 11월 항공연대 1세대 참모장	46)
	1대 대장	현용서 (玄龍瑞)	1927. 1.28	평남 대동	소학교 졸업	일본 소비15기 을, 일본 남방 제2공군 (필리핀) 조종사	1948년 11월 항공연대 비 행교관	
	2대 대장	박경옥 (朴敬玉)	1927. 7.15	함북 은성	중학교 졸업	일본 소비15기 을	1946년 10월 평양학원 항 공반 2기생	

직무	성명	생년 월일	출생 지역	학력	해방전 경력	해방후 경력	출처	
습격기연대	3대 대장	안성득	1925. 7.28	강원 철원	소학교 졸업		1948년 1월 20일 입대	
	연대 장	최현옥 (崔賢玉)	1928. 6.6	함북 경원	중학교 졸업	일본 소비15기 을	1946년 10월 평양학원 항공반 2기생, 1948년 11월 항공연대 2대대장	
	문화 부연 대장	정중우	1922. 11.9	함북 무산	소학교 졸업		1946년 10월 평양학원 항공반 2기생, 1948년 11월 항공연대 4대대 문화부대대장	
	1대 대장	리영일 (李英一)	1926. 7.1	평북 용천	소학교 졸업	일본 소비14기 을	1945년 10월 신의주항공대 창설요원, 1946년 6월 평양학원 항공반 1기생, 항공과 교관	47)
	2대 대장	강대용 (康大鏞)	1925. 3.1	평남 평양	평양 사범학교 중퇴	일본 특조1기, 일본 비행사단 조종사	1945년 10월 신의주항공대 창설요원, 1946년 6월 북조선중앙정치간부학교 입학, 졸업후 동 학교 교원	
3대 대장	장연진 (張然鎭)	1926. 7.13	황해 황주	중국 해룡공업국 민우급학교 졸업	일본 소비14기 을, 일본비행대 추우(宙) 제526부대(신의주) 조종사	1946년 2월 신의주항공대 참여, 1946년 6월 평양학원 항공반 1기생, 항공과 교관		
교도연대	연 대 장	허민국 (許民國)				일본 나고야항공학교 졸업	1948년 11월 항공연대 1대 대장	
	문화 부연 대장	지정심					1948년 11월 항공연대 문화부대대장(추정)	
	참 모 장	김한옥 (1대)					1948년 11월 항공연대 대열과장, 항공연대 4대대 참모장	48)
		최희춘 (2대)						
	1대 대장	리흥부 (李興富)	1927	평남 평양	평양제3 공업중학교 졸업	일본 소비15기 을	1946년 평양학원 항공반 입학	
3대 대장	김영곤 (1대)							
	김한옥 (2대)					위와 동일		

점이 반영된 결과였을 것이다. 또한, 왕련은 소련 유학 경험으로 소련 고문과 의사소통이 원활했고, 다른 군사간부에 비해 소련군의 군사교리나 전술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⁴⁰⁾ 이와 같은 정치적·군사적 배경 때문에 왕련은 평양학원 항공과(航空課)⁴¹⁾ 과장 이후 계속 항공부대 최고지휘관을 맡은 반면, 리활은 항공과 부과장 이후 계속 항공부대 부지휘관을 맡았다.

-
- 40)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연구』, 2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89~390쪽.
- 41) 평양학원 항공과는 훈련학급인 항공반과 별도로 1946년 6월 7일에 신설된 행정·지휘부서이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4권, 127쪽.
- 42) 왕련의 한자명은 자료에 따라 王連과 王蓮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김학철의 자서전에서 王連임을 확인하였다.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126쪽;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389~39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 697~699쪽;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4권, 131쪽;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 495쪽;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서울: 중앙일보사, 1992), 75쪽; 김학철, 『최후의 분대장』(서울: 문학과지성사, 1995), 339쪽; 조선인민군 제8900군부대 부대장 왕련, “직장근무증명서(1949.2.11),”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 43) 리용주, “이력서·자서전,” 『홍남공업대학 (교원) 이력서』(1949.2.28), RG 242, SA 2007, Box 미상, Item 18; “北 공군 창설 주역 리활은 일본 조종사출신,” 『데일리NK』, 2007.7.11; 윤용렬, 『상처투성이의 영광』(서울: 황금알, 2010), 75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1, 697쪽; 공군본부 정훈감실, 『空軍史』, 66쪽; 박찬목, 『內務規定』(1949.5.20),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50; 제855군부대, 『(비밀) 개인비행수첩: 최현옥』. 리용주는 리활의 동경지포공업전문학교 동기생이다.
- 44)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 500쪽; 平壤學院, 『새삼千里』, 2·3月號(평양: 平壤學院編輯部, 1947.3.26), 186쪽; 리종율, “휴가신청에 관하여(1949.8.20),”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 674쪽; 름대장 왕련·참모장 김만영, “증명서(1949.3.28),”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제855군부대, 『(비밀) 개인비행수첩: 최현옥』. 기존 연구는 항공연대 참모장의 이름을 ‘김만용’이라고 잘못 서술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293쪽.

문화부연대장 유성걸은 고려인으로 평양학원 창설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교원 겸 부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민족보위성 항공대대 시절부터 문화부대장을 맡아 북한 공군에 소련군의 규정·교범과 정치사업체계를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참모장 김만영은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 출신으로, 항공연대와 항공사단에서 모두 참모장을 맡았다. 그는 항공대대에서도 참모장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 해방후 입북한 중국공산당원은 중국공산당 당적 포기과 노동당 가입이 의무였다. 반면에 입북한 소련공산당원은 이중 당적이 인정되었다.⁴⁹⁾ 따라서 중국공산당원이었던 왕련과 소련공산당원이었던 유성걸은 둘 다 노동당원이다. 리활도 노동당원이었으며, 김만영의 당적은 알 수 없다.

비행사단의 연대장은 모두 일본에서 조종사교육을 받은 인물이다.

-
- 46) 추격기연대, 『평양이동인원』(1950.4); 조갑제, “尹應烈 장군 증언: 日軍출신 조종사들이 북한 공군 창설에 대거 참여,” 『조갑제닷컴』, 2007.6.1(<http://www.chogabje.com>); 김남학, “외출신청서(1949.8.4),”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玄龍瑞, 『黨課』, NARA, RG 242, SA 2009 I, Box 미상, Item 1.4; 윤용렬, 『상처투성이의 영광』, 120쪽.
- 47) 윤용렬, 『상처투성이의 영광』, 78, 12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 697~698쪽; 정중우, “여행증명신청서(1949.8.11),”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제861군부대, 『련대장 의하 통계표』(1950.3); 張然鎮, 『自敘傳』, RG 242, SA 2009, Box 5, Item. 83; 길운형,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서울: 서해문집, 2012), 90~91, 145~146, 310쪽.
- 48) 조갑제, “尹應烈 장군 증언,” 『조갑제닷컴』, 2007.6.1; 허민국, “외출신청서(1949.7.22),”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허민국·김한욱, “일보표(1950.2.2),” 師團대열과, 『日報』(1950.2.28); 항공사단 교도연대, 『렬락병명단』; 김만영·김한욱, “휴가신청에 관하여(1949.1.19),”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김한욱, “휴가신청서(1949.8.22),”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허민국·김한욱, “일보표(1950.2.2),” 師團대열과, 『日報』(1950.2.28); 윤용렬, 『상처투성이의 영광』, 120; 136쪽; 제2추격기연대, 『4月分 新聞配當표』(1950.4), NARA, RG 242, SA 2007, Box 10, Item 30.
- 49)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 선인, 2005), 182쪽.

추격기연대장 서주필과 습격기연대장 최현옥은 일본 육군소년비행 병학교(陸軍少年飛行兵學校, 이하 少飛) 15기 을(乙) 출신이고, 교도연대장 허민국은 나고야항공학교(名古屋航空學校) 출신이다. 소비15기 을은 모두 제2차대전 말기에 일본 공군으로 참전했으므로, 서주필과 최현옥은 일본군 출신이다. 허민국의 참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학교를 나온 리활이 해군 촉탁비행사로 참전한 사실을 감안하면, 그 역시 일본군 출신일 것이다.

서주필과 최현옥은 둘 다 1946년 10월 20일 평양학원에 입학하였다. 평양학원 항공반은 1946년 6월 제1기생 200여 명을 입교시켰고, 이들은 10월에 졸업하였다.⁵⁰⁾ 따라서 서주필과 최현옥은 평양학원 항공반 2기생이다. 항공연대시절, 허민국은 1대대장(추격기대대장)이었고, 최현옥은 2대대장(습격기대대장)이었다. 3대대장(기술대대장)은 한병순(韓炳純)이었다. 항공연대 간부명단에서 서주필은 보이지 않는다.⁵¹⁾ 그는 최현옥과 평양학원 동기였으므로 항공연대에서도 상급간부로 활동했을 것이다. 항공연대에는 제4대대가 있었는데,⁵²⁾ 서주필이 4대대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허민국은 해방 직후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공연대시절 최현옥과 함께 대대장에 임명된 것을 고려하면, 그 역시 평양학원 출신일 것이다. 연대장의 당적을 보면, 서주필은 무소속이었으므로 노동당원이 아니더라도 연대장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격기연대 문화부연대장 리주화와 습격기연대 문화부연대장 정중우는 둘 다 평양학원 항공반 2기생이다. 항공연대시절 경력을 보면,

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 675쪽.

51)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과정을 통해 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280쪽.

52) 정중우, “여행증명신청서(1949.8.11),”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정중우는 4대대 문화부대대장을 맡았다. 리주학과 지정심의 직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두 사람도 항공연대에서 문화부대대장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부연대장의 당적을 보면, 리주학과 정중우는 노동당원이었고, 지정심은 알 수 없다. 문화부에서 당관계를 전담했으므로 문화부연대장은 모두 노동당원이었을 것이다.

비행사단의 대대장은 거의 다 일본군 출신이다. 특히 일본 육군소년비행병학교 출신이 많다. 추격기연대 1대대장 현용서, 추격기연대 2대대장 박경옥, 교도연대 1대대장 리홍부는 소비15기 을 출신이다. 습격기연대 1대대장 리영일, 습격기연대 3대대장 장연진은 소비14기 을 출신이다. 습격기연대 2대대장 강대용은 일본 육군특별조종견습사관(陸軍特別操縦見習士官, 이하 特操) 1기생이다. 추격기연대 3대대장 안성득의 경력은 알 수 없다. 그러나 1948년 1월에 뒤늦게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단에서 3대대장에 임명된 것을 볼 때, 일본군이나 중국군 출신 조종사였을 것이다. 교도연대 2대대장과 3대대장의 이름과 경력은 알 수 없다. 결국, 비행사단 예하 대대장 9명 중 6명이 일본군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비행훈련을 받은 조종사 출신이었다.

다음으로 대대장의 해방 직후 경력을 보면, 신의주항공대 출신이 많다. 습격기연대 1대대장 리영일과 습격기연대 2대대장 강대용은 신의주항공대 창설요원이었다. 습격기연대 3대대장 장연진은 신의주항공대 대원 출신이다. 또한, 평양학원 졸업생이 많다. 추격기연대 1대대장 현용서, 2대대장 박경옥, 습격기연대 1대대장 리영일, 3대대장 장연진, 교도연대 1대대장 리홍부는 모두 평양학원 항공반 졸업생이다. 신의주항공대는 1945년 10월 25일 리활과 왕련을 중심으로 항공경력자들이 결성한 민간항공대였으며,⁵³⁾ 1946년 3월 17일 평양학원으로 흡수되었다.⁵⁴⁾ 따라서 신의주항공대에 참여한 인물은 북한지역

에서 최초로 항공단체의 창설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평양학원은 “향후 건설될 정규군대의 핵심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초대 원장은 김책(金策)이 맡았고, 명예원장은 김일성(金日成)이 추대되었다.⁵⁵⁾ 이 학원은 김일성 등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출신이 정규군 창설을 주도하기 위해 만든 정치·군사학교였다. 비행사단에 있는 평양학원 졸업생의 입학시기를 보면, 추격기연대 참모장 김남학, 습격기연대 1대대장 리영일, 습격기연대 3대대장 장연진 등은 항공반 1기생이고, 추격기연대장 서주필, 습격연대장 최현옥, 추격기연대 2대대장 박경옥 등은 2기생이다. 리영일과 장연진은 항공과 교관으로도 근무했다. 따라서, 평양학원 졸업생은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정규 공군을 창설하기 위해 투입한 핵심적인 창설요원이었다.

또한, 비행사단의 주요지휘관은 평양학원에 투입된 이후 비행사단의 창설을 직접 주도한 인물이었다. 비행사단의 지도부와 연대장은 물론, 추격기연대 참모장 김남학, 습격기연대 문화부연대장 정중우, 교도연대 3대대장 김한옥 등은 1946년부터 1948년까지 평양학원·항공대대·항공연대에서 부대장·참모·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운영과 인력 양성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북한 공군 창설과정의 중심흐름은 신의주항공대·평양학원항공과·항공대대·항공연대·항공사단으로 이어졌고, 이 흐름은 항공대 창설, 군사학교 창설, 정규 공군 창설로 귀결되었다. 북한 공군은 이를 통해 물질·제도적·운용적 측면에서 일본군의 군사적 요소를 배제하고 소련군의 군사적 요소를 정착시켰다.

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697쪽;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4권, 131쪽.

54) 손영중 외, 『조선통사』, 하, 675쪽.

55) 김일성, 『김일성전집』, 제2권, 276~277, 282~283쪽.

그러나 인적 측면에서는 일본군 출신의 존재로 인해 식민지 유산이 지속되었다.⁵⁶⁾ 비행사단 주요지휘관의 경력은 북한 공군 창설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비행사단 주요지휘관의 경력을 성분·학력·당적·정치세력별로 분석해보면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비행사단 주요지휘관 중 출신성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21명 중 12명이다. 지주·사무원은 각 1명, 노동자는 4명(33%), 빈농은 6명(50%)이었다. 본인성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15명이다. 노동자·빈농은 각 2명, 학생은 3명(20%), 사무원은 8명(53%)이다. 주요지휘관은 대부분 노동자·빈농의 자녀였고, 노동자·빈농·학생·사무원 출신이었다. 이들 중에 본인성분이 중농·부농·지주·자본가·소시민인 인물은 없었다. 북조선로동당은 당원으로 가입시킬 계급에 대해 “북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대렬에 로동자·농민·로력인테리겐차들을 가입”시킨다고 당규약에 규정하였다.⁵⁷⁾ 주요지휘관은 노동당이 당의 주력으로 설정한 핵심계급 출신이었다.

주요지휘관 중 학력을 알 수 있는 간부는 15명이다. 소학교 졸업자는 7명(47%), 중학교 졸업자는 4명(27%), 사범학교·전문학교 재학 이상은 2명(리활·강대용), 대학 졸업자는 2명(왕련·유성철)이다. 주요지휘관 중 83%가 북한정치세력이 선호하던 노동자·빈농의 자녀였다. 또한 73%는 사무원과 학생 출신이었고, 53%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항공학(航空學)을 학습할 수 있는 기본지식과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비행사단 주요지휘관 중 당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15명이다. 노동

56)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과정을 통해 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288쪽.

57) “당규약 제3조,” 『북조선로동당 강령·규약』,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27.

당원은 12명(80%)이고, 무소속은 3명(20%)이다. 비행사단 주요지휘관 중 노동당원은 약 8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당원과 청우당원은 없었다. 주요지휘관은 대부분 노동당원 중에서 선발되었고, 북조선노동당은 비행사단의 노동당원을 통해 당적 통제를 관철할 수 있었다.

주요지휘관 중 해방전 경력을 알 수 있는 간부는 13명이다. 고려인은 1명(유성걸), 조선의용군 출신은 2명(왕련·김만영), 일본군 출신은 10명(77%)이다. 사단장과 사단 참모장은 조선의용군 출신, 부사단장은 일본군 출신, 문화부사단장은 고려인이었다. 연대장 3명은 모두 일본군 출신이었고, 대대장 9명 중 6명도 일본군 출신이었다. 또한, 문화부사단장 유성걸을 제외하고 사단장·부사단장·연대장·대대장은 모두 조종사 출신이었다. 특히, 일본군 출신 10명 중 소비14기 을이 2명, 소비15기 을이 5명으로 70%가 소년비행병학교 졸업생이었다.

소년비행병제도는 1933년 4월 26일, 일본 육군성이 항공요원을 급속히 양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⁵⁸⁾ 최종 목적은 소년들을 훈련시켜 전쟁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비행하사관으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1943년부터 항공전력을 긴급히 확충하기 위해 1년의 기초교육을 생략하고 바로 상급학교에 입학시키는 ‘을종생도제도(乙種生徒制度)’를 도입했다.⁵⁹⁾ 최초의 을종생도인 소비14기 을은 1943년 3월에 1500명이 입학해 1년 3개월 동안 비행훈련을 받았다. 최대 인원이었던 소비15기 을은 1943년 10월에 8307명이 입학해 1년간 비행훈련을 받았다. 소비15기 을은 1944년 7월 말 졸업과 동시에 전투·중폭

58) 少飛會歷史編纂委員會, 『陸軍少年飛行兵史』(東京: 少飛會, 1983), 23~24쪽.

59) 배영미·노기카오리(野木香里)·김은식, 『식민지 소년의 창공에의 꿈』(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0), 10~12쪽.

격·경폭격·정찰 부문 조교요원으로 동남아전선에 배치되었고, 1945년부터 가미카제(神風) 특공대원으로 투입되었다. 소비16기 을부터는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다.⁶⁰⁾ 이들은 비록 2년 미만의 비행교육을 받았지만, 조종사훈련을 완료하고 실전에도 배치되었던 우수한 항공인력이었다.

비행사단에 일본군 출신이 등용된 것은 정책판단의 결과였다. 북한 정치세력은 해방 직후부터 일본군 출신을 공군 창설에 활용하려고 계획했다. 김일성은 1945년 11월 14일 슈티코프를 만난 자리에서 비행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군에 복무했던 40여 명의 조선인 조종사를 당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⁶¹⁾ 북한정치세력이 일본군 출신을 숙청하지 않은 것은 공군이 다른 병과에 비해 조종사·기술인력 등 병력 양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었다. 사실 해방전 특조1기, 소비14기(갑·을), 소비15기(갑·을)는 비행기록이 약 200~300시간에 불과한 초급조종사였다.⁶²⁾ 그러나 항공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군 출신 조종사는 공군 창설에 필수적인 인력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직후부터 일본군 출신을 당조직의 관리하에 두고, 1946년부터 평양학원 항공반에 입학시켜 공군 창설의 기간요원으로 육성하였다. 그 결과 일본군 출신은 비행사단 주요지휘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비행사단 지휘부를 정치세력의 측면에서 분류하면, 왕련과 김만영은 조선의용군 출신을 대표하고, 리활은 일본군 출신을 대표하며, 유성걸은 고려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비행사단 지휘부의 가장 큰

60) 少飛會歷史編纂委員會, 『陸軍少年飛行兵史』, 119, 132, 764쪽.

61) 기광서, “북한 무력 형성과 복소관계,” 220쪽.

62) 길윤형,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283쪽.

특징은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인민군 육군과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는 물론 항일연군 출신 중에 공군 경력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왕련은 동북항일연군과 인연이 깊다. 왕련은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의 일원으로 북만주 밀산유격대에서 활동했다.⁶³⁾ 당시 북만주에서는 김책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부대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는 물론 1940년부터 연안에서 활동했으므로 큰 범주에서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볼 수 있다. 소련군과 북한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소련 유학경험이 있고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에 모두 관여한 왕련이 일본군 출신인 리활보다 사단장으로 적임자였을 것이다. 또한, 왕련은 중국 연안에서 비행장 건설을 총지휘한 인물로 팡덕회(彭德懷) 등 중국공산당 수뇌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중관계 측면에서도 적임자였다.⁶⁴⁾

리활이 부사단장에 임명된 것은 북한지역에서 독보적인 비행경력을 가지고 있었고,⁶⁵⁾ 비행사단 간부 중에 일본군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군 출신을 대표해 조종사와 항공기술자를 양성하였다. 유성질이 문화부사단장에 임명된 것은 비행사단이 소련 공군의 체계로 창설되었기 때문이다.⁶⁶⁾ 그는 비행사단 내에 배치된 고려인들

63) 동북인민혁명군은 동북항일연군의 전신이다.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126쪽.

64) 김학철, 『최후의 분대장』, 338~339쪽. 김학철은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그의 매제가 왕련이다.

65) 리활은 제2차대전 종전 당시 2000시간의 비행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북한 항공계에서 최장 시간의 비행기록이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697쪽.

66) 소련 공군은 1938년부터 항공연대를 기본전술단위로 설정하고, 전투항공연대·경감습항공연대·폭격항공연대·중폭격항공연대 등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1941

을 통해 소련 공군의 규정과 교범을 번역하고 소련 공군의 정치사업 체계를 북한 공군에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투부대를 지휘하고 조종사를 육성하는 비행사단의 연대장과 대대장은 실전경험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일본군 출신이 임명되었다. 결국, 비행사단의 지휘부는 조선의용군·일본군 출신·고려인이 각각 역할을 분담한 채 연합하고 있는 정치연합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3. 비행사단 예하부대 간부의 구성과 군적·계급·당적

이 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비행사단 예하부대의 간부로 임명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 초까지 비행사단 예하부대로는 추격기연대, 습격기연대, 교도연대, 제1기술대대, 제2기술대대가 있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간부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대는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이다. 분석대상은 중대장급 이상 주요간부로 한정하였다. 먼저, 추격기연대 간부의 구성과 경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추격기연대의 중대장급 이상 주요간부는 총 27명이다.

추격기연대 주요간부의 연령·군적·성분·학력·당적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부의 평균연령은 25.3세였으며, 그중에서 24세가 7명, 25세가 5명이었다. 최연소자는 1대대 상급부관 방재성으로 21세였고, 최연장자는 3대대 문화부대대장 박학인과 이동수리소장

년 독소전쟁이후 기동전에 적합하도록 기본편제단위를 항공군단에서 2개 연대로 구성된 항공사단으로 변경하였다. 이재훈, 『蘇聯軍事政策』(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217, 282쪽. 인민군의 비행사단·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는 소련 공군의 항공사단·전투항공연대·경강습연대를 모델로 창설되었다. 추격기와 습격기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가리키는 소련군의 용어이다.

< 표 2 > 추격기연대 간부의 구성과 경력⁶⁷⁾

부대	직무	성명	직위	생년	입대년월일	입대장소	본인성분	출신성분	학력	정당
연대 본부	연대장	서주필	9	1927	1946.10.20	평양학원	사무원	사무원	중3	무소속
	참모장	김남학	6	1927	1946.5.5	평양학원	빈농	빈농	소졸	노동당
	문화부 연대장	리주학	7	1925	1946.10.1	평양학원	빈농	빈농	소졸	노동당
	기술부 연대장	전택주	8	1923	1946.6.7	평양학원	기술로동	빈농	중3	노동당
	민청 지도원	리종윤	5	1927	1946.5.1	평양학원	로동	빈농	중2	노동당
	작전참모	최동찬	6	1925	1946.10.27	평양학원	로동	로동	중2	노동당
	통신참모	박봉서	6	1927	1946.6.7	평양학원	빈농	빈농	소졸	노동당
	기요참모	김인수	3	1928	1948.2.17	중앙직속 경비대	로동	로동	소졸	노동당
1 대 대	대대장	현용서	7	1927	1946.8.26		사무원	빈농	중졸	노동당
	문화부 대대장	박재춘	5	1928	1946.11.23	함흥제3대	빈농	빈농	중퇴	노동당
	상급부관	방재성	6	1930	1946.8.28		학생	로동	소졸	무소속
	책임기술	정경표	6	1923	1946.9.28		로동	로동	중졸	노동당
	2중대장	리문순	5	1926	1946.10.21		사무원	빈농	중졸	노동당
2 대 대	대대장	박경옥	7	1927	1946.10.25	평양학원	학생	사무원	중졸	무소속
	문화부 대대장	김두손	6	1924	1946.12.10	1사 보수중대	로동	로동	소졸	노동당
	상급부관	최창범	6	1926	1947.4.25		빈농	빈농	중퇴	노동당
	책임기술	리은용	6	1923	1946.10.28		기술로동자	사무원	중3	노동당
	2중대장	엄용남	3	1926	1946.10.11		사무원	로동	중졸	노동당
3 대 대	3중대장	김기옥	5	1924	1946.11.16		사무원	중농	중졸	노동당
	대대장	안성득	6	1925	1948.1.20		사무원	빈농	소졸	무소속
	문화부 대대장	박학인	5	1922	1949.5.4		로동	로동	소졸	무소속
	상급부관	김응진	5	1926	1947.4.10		로동	로동	소졸	노동당
	책임기술	최봉소	6	1926	1946.6.7		사무원	사무원	중졸	노동당
연대 직속	2중대장	김희경	5	1924	1946.10.21		로동	빈농	중졸	노동당
	3중대장	황경필	4	1928	1946.11.18		빈농	빈농	소졸	노동당
	군외소 군외장	김성립	6	1927	1947.9.8	중앙병원	의사	빈농	소졸	무소속
	이동수리 소장	남두익	3	1922	1946.10.27	평양학원	로동	중농	중졸	노동당

남두익으로 둘 다 29세였다. 추격기연대의 주요간부는 향후 고급장교로 육성할 수 있는 25세 전후의 청년이었다.

둘째, 간부의 군적을 살펴보면, 입대시기는 1946년에 입대한 사람이 21명(77.8%)으로 가장 많다. 1947년에 입대한 간부는 3명, 1948년에 입대한 간부는 2명, 1949년에 입대한 간부는 1명이다. 간부 중 입대장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13명이다. 이중 평양학원 졸업생은 연대장 서주필, 참모장 김남학, 문화부연대장 리주학, 기술부연대장 전택주, 민청지도원 리중윤, 작전참모 최동찬, 통신참모 박봉세, 이동수리소장 남두익 등 8명(61.5%)이다. 기요참모 김인수는 ‘중앙직속 경비대’, 1대대 문화부대대장 박재춘은 ‘함흥 제3대’, 2대대 문화부대대장 김두손은 ‘제1사 보수중대’, 군의장 김성림은 ‘중앙병원’ 출신이다.

평양학원 졸업생의 입대시기를 보면, 1946년 5월 5일부터 10월 27일 사이에 입대하였다. 이 중 1946년 5월이 1명, 6월이 1명, 10월이 5명이다. 1946년 5·6월에 입대한 비행사는 평양학원 항공반 1기생이다. 항공과는 약 4개월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므로 10월에 입대한 비행사는 항공반 2기생이다.⁶⁸⁾ 보병사단 출신의 입대시기를 보면, 1대대 문화부대대장은 1946년 11월 23일에 ‘함흥 제3대’에 입대하였다. 함흥지역에는 1946년 6월 보안대원 훈련기관이 설치되었고, 1947년 3월에는 ‘보안간부훈련(保安幹部訓練) 제3소(제3보병사단)’ 보안중대가 배치되었다.⁶⁹⁾ 따라서 ‘함흥 제3대’라는 명칭은 이 문서 작성 시 함흥

67) 추격기연대, 『평양이동인원』(1950.4). 정당을 제외하고 모두 원문 그대로 서술하였고, 틀린 성명은 정정하였다. ‘직위’는 ‘직무’와 달리 군인들의 서열과 봉급을 규정하는 군사계급이다. 동일한 직무에 있더라도 직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표에서 1대대장 현용서는 7급 군관이지만 3대대장 안성득은 6급 군관이다.

68)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과정을 통해 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266쪽.

에 배치된 보안간부훈련 제3소 제3대대의 명칭을 1946년으로 소급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대대 문화부대대장은 1946년 12월 10일에 ‘제1사 보수중대’에 입대하였다. ‘제1사’는 1946년 11월 10일에 개천에 조직된 ‘보안간부훈련 제1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에도 보병사단으로 불렸다.⁷⁰⁾ ‘중앙직속 경비대’와 ‘중앙병원’은 1947년 5월 17일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北朝鮮人民集團軍總司令部) 직속으로 편성된 ‘경위연대(警衛聯隊)’와 ‘중앙병원(中央病院)’을 말한다.⁷¹⁾

결국, 추격기연대 주요간부 중 61.5%는 평양학원 항공반 1·2기생이었다. 문화부대대장은 둘 다 보병사단 출신이었다. 기요참모와 군의장은 둘 다 총사령부 직속기구에서 충원된 인물이었다. 또한, 연대간부의 77.8%는 1946년 인민군 창설 초기에 입대한 인물이었다. 추격기연대의 간부는 주로 북한정치세력이 고급군사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평양학원에 입학해 인민군 창설 초기부터 군관으로 육성된 인물이었다.

셋째, 추격기연대 간부의 성분은 출신성분과 본인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신성분은 빈농 13명(48%), 로동 8명(30%), 사무원 4명(15%), 중농 2명(7%)이다. 본인성분은 로동 9명(34%), 사무원 7명(26%), 빈농 6명(22%), 기술로동 2명(7%), 학생 2명(7%), 의사 1명(4%)이다. 추격기연대 간부의 78%는 노동자·빈농의 자녀였고, 82%는 노동자·사무원·빈농으로 일하다 입대한 인물이었다.

넷째, 추격기연대 간부의 학력은 소졸 11명, 중학(중2·중3·중퇴) 7명,

69) 김선호, “해방 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軍史』, 82호(2012.3), 202~203, 207쪽.

70) 김선호, 위의 글, 203, 206쪽.

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 682쪽;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中卷(서울: 兵學社, 1977), 30~31쪽.

중졸 9명이다. 소졸 이하는 41%, 중학교 재학 이상은 59%였다. 추격기연대 간부 중 문맹자는 없었다. 다섯째, 정당을 살펴보면, 노동당원은 21명(78%), 무소속은 6명이었다. 추격기연대는 비행사단 주요지휘관과 마찬가지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물이 많았고, 대부분 노동당원이었다. 그리고 추격기연대 주요간부 중에도 민주당원과 청우당원은 없었다.

다음으로, 습격기연대 간부의 구성과 경력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습격기연대의 중대장급 이상 주요간부는 총 28명이다.

첫째, 습격기연대 간부의 평균연령은 24.7세였다. 연령이 기록된 27명 중 23세가 7명, 24세가 7명이었다. 최연소자는 1대대 2중대장 리경룡으로 21살이었고, 최연장자는 수리소장 김병식으로 30살이었다. 추격기연대 주요간부의 평균연령은 25.3세였으므로 습격기연대 주요간부의 평균연령이 약간 낮았다.

둘째, 군적을 살펴보면, 습격기연대 간부의 입대시기는 1946년에 입대한 사람이 22명(78.5%)으로 가장 많다. 1947년에 입대한 간부는 2명, 1948년에 입대한 간부는 3명이었다. 추격기연대 주요간부 중 1946년에 입대한 간부가 77.5%였는데, 습격기연대 간부도 비슷한 시기에 입대했음을 알 수 있다. 입대장소를 살펴보면, 평양학원 졸업생은 연대장 최현옥, 문화부연대장 정종우, 제1대대장 리영일 등 9명이다. 제2중앙정치학교 졸업생은 2대대장 강대용, 3대대장 장영진, 수리소장 김병식 등 15명이다. 민청지도원 송진옥은 ‘보병독립려단’, 1대대 문화부대대장 최갑순은 ‘정주’, 2대대 상급부관 위기주는 ‘사교 3대대’, 통신중대장 리형은 ‘평양 제1군관학교’ 출신이다.

72) 제861군부대, 『련대장 의하 통계표』(1950.3). 정당을 제외하고 모두 원문 그대로 서술하였다.

<표 3> 습격기연대 간부의 구성과 경력⁷²⁾

부대	직무	성명	직위	생년	입대년월일	입대장소	본인 성분	출신 성분	학력	정당
연대본부	연대장	최현옥	8	1928	1946.10.20	평양학원	학생	로동	중졸	노동당
	문화부연대장	정종우	7	1922	1946.10.1	평양학원	로동	로동	소졸	노동당
	작전참모	윤희준	6	1925	1946.5.1	평양학원	빈농	빈농	소졸	
	통신참모	신현철	6	1928	1946.10.1	제2정치학교	사무원	사무원	소졸	노동당
	책임기사	김영권	6	1923	1946.10.27	제2정치학교	로동	빈농	소졸	노동당
	민청지도원	송진옥	5	1928	1946.11.27	보병 독립려단	빈농	빈농	소졸	노동당
1대대	대대장	리영일	7	1926	1946.6.7	평양학원	사무원	빈농	소졸	노동당
	문화부대대장	최갑순	5	1927	1946.9.25	정주	로동	로동	초중	노동당
	비행부대대장	김병옥	4	1927	1946.6.7	제2중앙정치	학생	소시민	고중	무소속
	상급부관	최학현	6	1928	1946.12.3	제2중앙정치	로동	로동	초중	노동당
	책임기수	문용옥	6	1925	1946.6.1	제2중앙정치	로동	로동	소졸	노동당
	2중대 책임비행사	문택용	3	1927	1948.1.11	제2중앙정치	로동	로동	중2	노동당
	3중대장	리경룡	4	1930	1948.5.7	평양학원	학생	소시민	고졸	무소속
2대대	대대장	강대용	7	1925	1946.6.7	제2중앙정치	사무원		사범학교 1년	노동당
	상급부관	위기주	5	1927	1947.4.25	사 교3대대	빈농		중2	노동당
	책임기수	김명수	6	1926	1947.2.28	제2중앙정치	로동		중졸	노동당
	1중대장	양태현	4	1926	1947.7.30	2사 6연대	로동		중1	노동당
	2중대장	리재선	4	1925	1946.10.20	평양학원	사무원		중졸	노동당
	3중대장	리택용	4	1928	1946.10.21	평양학원	사무원		중졸	노동당
3대대	대대장	장연진	7	1926	1946.6.6	제2중앙정치	사무원		중졸	노동당
	상급부관	백승기	4		1946	제2중앙정치	로동		소졸	노동당
	책임기수	안필균	4	1927	1946.10.24	평양학원	로동		소졸	노동당
	1중대장	최수진	4	1927	1948.10.15	제2중앙정치	학생		중3	
	2중대장	리근순	4	1923	1946.10.20	제2중앙정치	사무원		중졸	노동당
	3중대장	리희영	4	1928	1946.9.27	제2중앙정치	로동		중3	
연대직속	수리소장	김병식	6	1921	1946.6.7	제2중앙정치	로동	사무원	소졸	노동당
	통신중대장	리형	5	1928	1946.11.26	평양 제1군관학교	학생	사무원	농업학교	노동당
	통신중대 기술부중대장	장정명	4	1927	1946.6.6	평양학원	중농	중농	상업학교	

입대장소 중에는 ‘제2정치학교’와 ‘제2중앙정치학교’가 많다. 1946년 당시 북한에는 이 같은 이름의 학교가 없었다. 제2정치학교는 인민군 창설이후 설립된 학교로, 평양학원 정치과의 후신이다. 평양학원 2기생 정정환은 1950년 2월에 쓴 『자서전』에서 자신이 다닌 평양학원 정치과를 ‘현재 조선인민군 제2정치학교’라고 기록하고 있다.⁷³⁾ 제2정치학교의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군 제2중앙정치학교(第2中央政治學校)’이다.⁷⁴⁾ 인민군이 1950년에 문서를 작성하면서 후에 설립된 제2중앙정치학교를 1946년으로 소급해 기록한 것이다. <표 3>에서 입대장소로 기재된 ‘평양학원’은 평양학원 항공반에 입대한 사람들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습격기연대 주요간부 28명 중 24명(85.7%)은 평양학원 졸업생이었다. 이 중 9명은 항공반 졸업생이고, 15명은 정치과 졸업생이었다.

1대대 문화부대대장이 입대한 ‘정주’는 1946년 6월 초 평북 정주에 설립된 보안간부훈련소(제1보병사단) 제3분소를 뜻하며, 2대대 상급부관이 입대한 ‘사 교3대대’는 1946년 9월 초 평남 안주에 설치된 제1보병사단 교도대대를 뜻한다.⁷⁵⁾ 통신중대장이 입대한 ‘평양 제1군관학교’는 1946년 7월 8일 평남 용강군에 설립된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를 뜻한다.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1948년 12월 초 평양사동으로 옮겨 ‘조선인민군 제1군관학교(第1軍官學校)’로 개편되었기 때문에⁷⁶⁾ 문서에 ‘평양 제1군관학교’로 기재된 것이다.

73) 정정환(제17포병연대 1대대장), 『자서전』(1950.2.11),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14.

74) 김계성, 『幹部履歷書』,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 김계성은 1950년 5월 20일 ‘제2중앙정치학교’를 졸업했다.

75) 김선호, “해방 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201, 204쪽.

76) 김선호, “해방 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194쪽.

이를 정리하면, 습격기연대 간부의 85.7%는 평양학원 졸업생이었다. 습격기연대의 부대장(연대장·대대장·중대장), 참모, 상급부관, 책임기사, 문화부연대장, 비행부대대장은 모두 평양학원 졸업생이 맡았다. 추격기연대 주요간부의 61.5%가 평양학원 졸업생이었으므로, 습격기연대가 추격기연대보다 평양학원 졸업생이 24.2% 더 많았다. 1대대 문화부대대장과 2대대 상급부관은 제1보병사단 출신이 맡았고, 통신중대장은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이 맡았다.

셋째, 습격기연대 간부 중 출신성분이 기록된 사람은 16명, 본인성분이 기록된 사람은 28명이다. 출신성분은 16명 중 로동 6명(36%), 빈농 4명(25%), 사무원 3명(19%), 소시민 2명(13%), 중농 1명(7%)이다. 본인성분은 28명 중 로동 12명(43%), 사무원 7명(25%), 학생 5명(18%), 빈농 3명(11%), 중농 1명(3%)이다. 습격기연대 간부의 61%는 노동자·빈농의 자녀였고, 86%는 노동자·사무원·학생으로 활동하다 입대한 인물이었다. 추격기연대 간부의 78%는 노동자·빈농의 자녀였고, 82%는 노동자·사무원·학생으로 활동하다 입대한 인물이었다. 습격기연대의 간부가 추격기연대의 간부보다 노동자·빈농의 자녀가 적었다.

넷째, 습격기연대 간부의 학력은 소졸 10명, 초중 2명, 중학(중·중2·중3) 5명, 중졸 6명, 고중 1명, 고졸 이상(고졸, 사범학교·농업학교·상업학교 졸) 4명이다. 소졸 이하는 36%, 중학교 재학 이상은 64%였다. 추격기연대 간부는 소졸 이하가 41%, 중학교 재학 이상이 59%였으므로, 2개 연대 간부의 학력은 비슷했다.

다섯째, 습격기연대 간부의 당적은 2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노동당원이 22명(91.7%), 무소속이 2명이다. 추격기연대 간부 중 노동당원은 21명(78%), 무소속은 6명이었다. 습격기연대의 간부가 추격기연대의 간부보다 노동당원의 비율이 13.7%가 높았다.

2개 연대간부를 비교해보면, 습격기연대의 간부가 추격기연대의 간부보다 평양학원 졸업생이 24.2% 더 많았고, 노동당원의 비율도 13.7%가 높았다. 북한정치세력이 습격기연대에 평양학원 졸업생과 노동당원을 더 많이 배치한 것은 향후 습격기연대를 증편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추격기연대가 1개 연대로 지속되었음에 비해, 습격기연대는 1950년 1월에 ‘습격기1연대’와 ‘습격기2연대’로 증편되었다.⁷⁷⁾ 북한정치세력은 고급군관으로 양성된 평양학원 출신과 노동당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개전 직전 습격기연대를 급속히 확편하고자 구상했다.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 간부의 경력을 종합해보면, 비행사단 연대간부의 전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개 연대에서 경력이 확인된 간부는 총 55명이다. 첫째, 비행사단 연대간부의 평균연령은 25세였다. 최연소자는 21세였고, 최연장자는 30세였다. 이들은 주로 1946년에 21세의 나이로 입대해 1년간 정치·군사훈련을 받고 3년간 부대생활을 통해 연대간부로 성장하였다. 해방전 소비14기 을과 소비15기 을의 모집연령은 만 14~20세였다.⁷⁸⁾ 이들은 1950년 당시 만 21~27세였다. 북한정치세력은 일본 육군소년비행병학교 출신과 비슷한 또래를 선발해 비행간부로 육성한 것이다.

둘째, 군적을 살펴보면, 비행사단 연대간부 55명 중 43명(78.2%)이 1946년에 입대하였다. 즉, 비행사단 주요간부 중 78.2%는 1946년 인민군의 창설 초기부터 입대해 군사간부로 육성된 인물이었다. 입대장소를 보면, 평양학원 졸업생은 추격기연대의 연대장·참모장·문화부연대장·기술부연대장·작전참모·이동수리소장과, 습격기연대의 연대

77) “간부부족 병종별 통계표(1950.1.28),” 師團대열과, 『日報』(1950.2.28).

78) 배영미·노기카오리(野木香里)·김은식, 『식민지 소년의 창공에의 꿈』, 10쪽.

장·문화부연대장·작전참모·1대대장·2대대장·3대대장 등 총 32명(58.2%)이었다. 보병사단 출신은 추격기연대 1대대·2대대 문화부대대장, 습격기연대 1대대 문화부대대장과 2대대 상급부관 등 4명이었다. 그 외에 추격기연대 기요참모와 군의장은 총사령부 직속기구 출신, 습격기연대 직속 통신중대장은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이었다. 즉, 2개 연대 주요간부 중 평양학원 졸업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연대장·문화부연대장·연대참모·대대장 등 연대의 핵심적인 지휘관과 참모를 맡고 있었다. 연대의 문화부대대장·상급부관·기요참모·군의장·통신중대장 등은 보병사단·중앙보안간부학교·총사령부 등 육군과 군사지휘기관에서 성장한 인물로 충원되었다.

셋째, 연대간부의 성분을 살펴보자. 출신성분은 총 43명 중 빈농 17명(39.5%), 로동 14명(32.5%), 사무원 7명(16%), 중농 3명(7%), 소시민 2명(5%)이다. 본인성분은 총 55명 중 노동자(기술로동 포함) 23명(42%), 사무원 14명(25%), 빈농 9명(16%), 학생 7명(13%), 의사 1명(2%), 중농 1명(2%)이다. 연대간부의 성분은 북조선로동당과 평양학원의 학생 선발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북조선로동당은 1947년 3월 15일 중앙상무위원회에서 각급 학교 입학생의 50~70%를 반드시 선진노동자와 농민 성분의 열성분자를 뽑도록 규정한 바 있다.⁷⁹⁾ 이와 같은 간부정책 때문에 노동자와 빈농이 연대간부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간부 중에서 빈농에 비해 노동자와 사무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비행사단의 운용에 있어서 기술인력과 전문인력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다. 출신성분은 빈농이 39.5%, 노동자가 32.5%, 사무원이 16%로, 빈농과 노동자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출신성분에서

79) “간부양성제도에 대하여: 당중앙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 결정서(1947.3.15),” 『北韓關係史料集』, 30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179~180쪽.

빈농과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평양학원의 선발규정 때문이었다. 평양학원에서는 주로 “혁명가유자녀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자녀들과 청년학교 학생들”을 엄선해 입학시켰다.⁸⁰⁾ 즉, 연대간부는 주로 북조선로동당과 평양학원이 특별히 선발해 육성한 인물이었다.

넷째, 연대간부의 학력은 55명 중 소졸 21명, 초중 2명, 중학(중1·중2·중3·중퇴) 12명, 중졸 15명, 고졸 1명, 고졸 이상(고졸, 사범학교·농업학교·상업학교 졸) 4명이다. 소졸이 38%, 소졸 초과 중졸 미만은 26%, 중졸 초과 고졸 미만은 29%, 고졸 이상은 7%였다. 학력을 보면, 문맹은 전혀 없고, 소졸이 38%, 중학교 재학 이상 고졸 미만이 55%, 고졸 이상이 7%를 차지했다. 평양학원 2기생 3명의 학력을 보면 무학·소졸·소졸이었다.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학생 3명의 학력을 보면, 무학·소졸·고졸이었다.⁸¹⁾ 비행사단 연대간부는 평양학원·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에 비해 문맹자가 전혀 없고 비교적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재학 이상이 63%를 차지해 북한정치세력이 고학력자를 공군 간부로 육성했음을 알 수 있다. 고학력자를 간부로 육성한 이유는 조종사·항공기술인력의 교육과정에 “대수·기하·물리학·기상학·수학” 등 고등지식이 필요한 과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⁸²⁾

다섯째, 연대간부의 당적을 보면, 당적이 기록된 51명 중 노동당원은 43명(84%), 무소속은 8명(16%)이다. 북조선중앙정치간부학교 1기

80) 태병렬·오찬복, 『태양을 모시고 60년』(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7), 65쪽.

81) 김선호, “해방 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191, 199쪽.

82) 예를 들어, 항공사단 교도연대의 학생들은 ‘인수분해와 방정식 해법’까지 학습했다. 항공사단, 『월말보고서』(1950.3), NARA, RG 242, SA 2007, Box 10, Item 20.

생 112명의 당적은 노동당원이 64명(57%), 민주당이 7명(6%), 신민당원이 7명(6%), 청우당원이 3명(2.5%), 무소속이 22명(19.5%)이었다.⁸³⁾ 비행사단 연대간부를 중앙정치간부학교 1기생과 비교해보면, 노동당원은 27%가 많았고, 무소속은 3.5%가 적었으며, 다른 당원이 한 명도 없었다. 연대간부는 우당원(友黨員) 없이 노동당원으로 단일하게 통일되었으며, 노동당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북조선로동당은 각 부대와 기관을 장악한 노동당원을 통해 비행사단에 대한 당적 통제와 영향력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노동당은 비행사단에서 진정한 유일당(唯一黨)이었다.

비행사단 연대간부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면, 이들 중 72%는 노동자와 빈농의 자녀였고, 83%는 노동자·빈농·사무원으로 일하다 입대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25세의 청년이었고, 78%는 1946년에 입대한 창군요원이었다. 연대간부의 58.2%는 평양학원 졸업생이었고, 63%는 중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이들은 주로 북조선로동당과 평양학원에서 특별히 선발해 군사간부로 육성한 인물이었다. 추격기연대장·습격기연대장과 6명의 대대장은 모두 일본의 육군소년비행병학교와 육군특별조종견습사관 과정을 졸업한 일본군 출신이었다.

일본군 출신이 공군 간부로 성장한 데에는 비행기의 기종(機種)도 영향을 미쳤다. 소년비행병들은 해방전 95식 3형 초급연습기, 95식 2형 중간연습기, 99식·1식·2식 고등연습기, 독일제 ‘용구망’기로 훈련받았는데, 평양학원의 훈련용연습기도 일본제 99식 고등연습기와 독일제 ‘용구망’기였다.⁸⁴⁾ 이들은 이미 훈련과 비행을 통해 일본제·

83)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 487쪽.

84) 少飛會歷史編纂委員會, “少年飛行兵關聯機種·概說,” 『陸軍少年飛行兵史』, 903~908

독일제 연습기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평양학원의 훈련을 선도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소년비행병학교 출신은 이와 같은 경력 때문에 인민군 공군뿐만 아니라 국군 공군의 창설과정에도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소비 2기생인 이근석(李根植)은 ‘공군 창설 7인 간부’ 중 한명으로 육군항공대 창설을 주도했고, 윤응렬(尹應烈), 김두만(金斗萬), 전봉희(田鳳熙) 등 소비15기 을도 창설요원으로 활약했다.⁸⁵⁾

연대간부의 경력 중 비행사단의 정치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군적·계급·당적이다. 연대간부의 58.2%는 평양학원 졸업생이었는데, 이 학원은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핵심인물을 투입해 설립한 군사학교였다. 평양학원의 창설을 주도한 사람은 김책, 안길(安吉), 김중동(金曾東) 등 항일연군 출신이었고, 창설 이후에도 조정철(趙正哲)이 정치부원장을 맡고 심태산(沈泰山)이 군사부원장을 맡아 학생들을 직접 육성하였다.⁸⁶⁾ 비행사단 지휘부는 항일연군 출신을 제외하고 조선의용군 출신·일본군 출신·고려인의 정치연합체제로 구성되었다.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자신들이 육성한 평양학원 졸업생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행사단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행사단 연대간부가 노동자·빈농·사무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것은 북조선로동당이 지향해온 계급정책의 결과였다. 노동당은 창당 직후부터 스스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봉대”라고 규정하였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동맹은 민주주의적 통일전선의 가장 튼튼한 기초”라고 선언하였다.⁸⁷⁾ 노동당은 이 같은 계급정책에 따라 노

쪽, 윤응렬, 『상처투성이의 영광』, 39, 76쪽.

85) 백기인, 『建軍史』(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25쪽; 윤응렬, 『상처투성이의 영광』, 92, 98쪽.

86) 김선호, “해방 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182~183쪽.

동자·농민·사무원을 계획적으로 등용하였고, 지주·자본가·소시민을 조직적으로 배제하였다. 결국, 비행사단은 노동당의 계급정책이 관철됨으로써 당이 신뢰할 수 있는 무력으로 건설되었다. 또한, 연대간부의 84%가 노동당원이었으므로, 북조선로동당은 비행사단의 예하부대를 장악한 노동당원을 통해 당적 통제와 영향력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4. 맺음말

비행사단의 주요간부는 해방이후 정치질서를 주도한 북한정치세력과 이들이 육성해온 인물이 많고 있었다. 비행사단의 지휘부는 모두 평양학원 항공반부터 항공대대·항공연대에 이르기까지 직접 비행사단을 창설한 인물이었다, 대부분 노동당원으로서 북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비행사단에 관철시켰다. 또한, 비행사단 지휘부는 북한지역의 다양한 정치세력을 대표했다. 사단장 왕련은 조선의용군 출신을 대표하고, 부사단장 리활은 일본군 출신을 대표하며, 문화부사단장 유성걸은 고려인을 대표했다. 이들은 비행사단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한 채 한반도의 무력통일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정치연합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비행사단은 조선의용군 출신의 지휘와 고려인의 정치사상적 지도 아래 일본군 출신에 의해 육성되었다. 비행사단 지휘부의 가장 큰 특징은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항일연군 출신은 자신들이 육성한 평양학원의 졸업생인 연대간부

87) 英煥, “勞動黨의 創立과 當面한 諸課業에 對하여.”(1946.10), 국사편찬위원회 편, 『北韓關係史料集』, 42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4), 65~66쪽.

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행사단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행사단의 지휘부와 달리 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의 중심세력은 일본군 출신이었다. 특히, 추격기연대장·습격기연대장과 6명의 대대장은 모두 일본의 육군소년비행병학교와 육군특별조종견습사관 과정을 졸업한 일본군 출신이었다. 또한, 비행사단에는 이들 외에도 교도연대장 허민국, 교도연대 1대대장 리흥부 등 많은 일본군 출신이 근무하고 있었다. 북한정치세력은 항공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방 직후부터 공군을 창설하기 위해 일본군 출신을 적극 등용하였다. 일본군 출신은 바로 등용된 것이 아니라 평양학원에서 사상교육과 사상심사를 거친 후 등용되었다. 이들은 스스로 친일경력과 출신성분을 자아비판하는 과정을 거쳤다.⁸⁸⁾ 사상심사와 자아비판을 거친 인물은 공군 창설과정에 등용되었고, 그 결과, 일본군 출신이 비행사단 연대간부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비행사단 연대간부는 노동자·빈농·사무원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북조선로동당이 지향해온 계급정책의 결과였다. 노동당은 창당 직후부터 노동자·농민·사무원을 계획적으로 등용하였고, 지주·자본가·소시민을 조직적으로 배제하였다. 그 결과, 비행사단은 노동당의 계급정책이 관철됨으로써 당이 신뢰할 수 있는 무력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노동당은 한국전쟁 이전에 비행사단에서 유일당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비행사단의 노동당원을 통해 당적 통제와 영향력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같은 비행사단의 군적·계급·당적은 주요간부를 맡고 있던 일본군 출신의 정치적 동요를 차단하고 사상적 통제

88) 사상교육·사상심사의 내용은 다음 연구성과를 참조 바람.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과정을 통해 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273~275, 284~285쪽.

를 확보할 수 있는 내부적 동력이었다.

이와 같은 북한 공군의 정치연합체제는 육군의 정치연합체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 육군도 정치연합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육군의 군단장·사단장·여단장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9명, 조선의용군 출신 6명, 고려인 1명으로 구성되었고, 일본군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⁸⁹⁾ 북한 공군이 육군과 다른 정치연합체제를 형성했던 이유는 소련이 육군에 비해 공군을 소극적으로 지원하였고,⁹⁰⁾ 병력양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지도부는 소련의 지원이 지연되자 일본군 출신을 최대한 활용해 공군을 육성했다. 결국, 조선인민군의 정치연합체제는 국내·국제정세에 따라 각 병종별로 다르게 구축되었고, 이것은 향후 정치질서가 변화할 경우 북한지도부와 민족보위성의 정치연합체제에 따라 변화할 예정이었다.

이 글은 지면과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북한 공군과 북한지도부·민족보위성에 구축된 정치연합체제의 차이, 비행사단 간부의 변화과정, 비행사단 교도연대·기술대대·직속부대 등의 간부구성, 비행사단 군인의 교육훈련·내무생활·규율규정·개인생활·사회관계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상의 주제에 대한 해명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접수: 11월 1일 / 수정: 11월 16일 / 채택: 12월 1일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15~16쪽.

90) 이신재, “한국전쟁 이전 소련의 북한 공군지원 고찰(1945~1950),” 261~262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일성, 『김일성전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民主朝鮮社 編, 『解放後四年間の 國內外重要日誌(增補版)』(평양: 民主朝鮮社, 1949).

北朝鮮勞動黨 宣傳煽動部, 『金日成將軍重要論文集: 民主朝鮮自主獨立의 길』(평양: 勞動出版社, 1947.3.10).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4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손영철 외, 『조선통사』, 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태병렬·오찬복, 『태양을 모시고 60년』(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7).

平壤學院, 『새三千里』, 2·3月號(평양: 平壤學院編輯部, 1947.3.26).

2) 미군노획문서

“人員統計表(1950.1.25),” 師團대열과, 『日報』(1950.2.28),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17.

『북조선로동당 강령·규약』,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27.

김남학, “외출신청서(1949.8.4),”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57.

김만영·김한욱, “휴가신청에 관하여(1949.1.19),”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57.

김한욱, “휴가신청서(1949.8.22),”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57.

김한욱·리명록, 『일일근무명령』(교도련대 三大隊참모부, 1950.6.25), NARA, RG 242, SA 2007, Box 10, Item 61.

련대장 왕련·참모장 김만영, “증명서(1949.3.28),”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57.

리용주, “이력서·자서전,” 『홍남공업대학(교원) 이력서』(1949.2.28), RG 242, SA

2007, Box 미상, Item 18.

리종윤, “휴가신청에 관하여(1949.8.20),”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57.

박찬목, 『內務規定』(1949.5.20),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50.

張然鎭(飛行科 軍官), 『自叙傳』, RG 242, SA 2009, Box 5, Item. 83.

정중우, “군관상학조 명단 제출에 대하여(1950.1.7),” 조선인민군 861군부대 문
화부, 『잡서류철』(1950.5), NARA, RG 242, SA 2010, Box 미상, Item 74.

정중우, “여행증명신청서(1949.8.11),”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57.

제56추격기련대참모부, “번호 및 대호규정에 관하여(1950.1.17),” 제2대대,
『(극비) 상부지시문철』(1950.5), NARA, RG 242, SA 2010, Box 3, Item 164.

제855군부대, 『(비밀) 개인비행수첩: 최현옥』, NARA, RG 242, SA 2007, Box 8,
Item 13E.

제861군부대, 『련대장 의하 통계표』(1950.3), NARA, RG 242, SA 2010, Box 2,
Item 47.10.

제2추격기연대, “4月分 新聞配當표(1950.4),” NARA, RG 242, SA 2007, Box 10,
Item 30.

조선인민군 제8900군부대 부대장 왕련, “직장근무증명서(1949.2.11),”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57.

추격기연대, 『(극비) 련대간부명단』(1950.1.1), NARA, RG 242, SA 2010, Box 2,
Item 47.4.

_____, 『평강이동인원』(1950.4), NARA, RG 242, SA 2010, Box 2, Item 47.11.

항공사단, 『월말보고서』(1950.3), NARA, RG 242, SA 2007, Box 10, Item 20.

항공사단 교도연대, 『렬락병명단』,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33.

허민국, “외출신청서(1949.7.22),” 대열과, 『제반신청서철』(1949),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57.

허민국·김한욱, “일보표(1950.2.2),” 師團대열과, 『日報』(1950.2.28),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17.

허민국·부부대장 최희훈, 『(비밀) 명령 제248호: 군관들에 대한 군사규정 및 제식
체육훈련 실시에 관하여』(제567군부대 참모부, 1950.6.10), NARA, RG

242, SA 2007, Box 10, Item 39.

玄龍瑞, 『黨課』, NARA, RG 242, SA 2009, Box 미상, Item 1.4.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공군본부 정훈감실, 『空軍史』(계룡: 공군본부, 19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20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국사편찬위원회 편, 『北韓關係史料集』, 5·30·42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1998·2004).

김윤형,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서울: 서해문집, 2012).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서울: 선인, 2003).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김학철, 『최후의 분대장—김학철 자서전』(서울: 문화과지성사, 1995).

배영미·노기카오리(野木香里)·김은식, 『식민지 소년의 창공예의 꿈』(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0).

백기인, 『建軍史』(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 선인, 2005).

윤응렬, 『상처투성이의 영광』(서울: 황금알, 2010).

이재훈, 『蘇聯軍事政策』(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서울: 경인문화사, 2006).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中卷(서울: 兵學社, 1977).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서울: 중앙일보사, 1992).

2) 논문

기광서, “북한 무력 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研究』, 28권 3호(2004).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과정을 통해 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현대북한 연구』, 제15권 2호(2012.8).

_____, “해방 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軍史』, 82호(2012.3).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연구』, 제2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이신재, “한국전쟁 이전 소련의 북한 공군지원 고찰(1945~1950),” 『현대북한연구』, 제19권 1호(2016).

3) 신문

『데일리NK』.

『조갑제닷컴』.

3. 국외 자료

少飛會歴史編纂委員會, 『陸軍少年飛行兵史』(東京: 少飛會, 1983).

The Officer in the Air Force of North Korea before the Korean War and the Political Union System

Kim, Seon Ho(Kyunghee University)

Before the Korean War, some features of the officers in the Air Force of North Korea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flight division command was composed of superior people to the regiment in educational background and work experience aspects. The division command had carried out the core role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ir Force. It was representative of the many political parties in the North Korea. In the division, the commander represented the Korean volunteer army group, the deputy commander did the people from the Japanese army, and the deputy division commander of the culture did the Korean of Soviet origin. However no one represented the anti-Japanese union army group. This was the biggest difference with the Army of North Korea.

Second, two out of every three deputy regiment commanders of the

culture were from the Pyongyang Academy. All the deputy regiment commanders of the culture held deputy Battalion commanders in the air regiment and probably were members of the Workers' Party. One of the every chief of staff in the regiment was from the Pyongyang Academy. It seems that the every chief in the regiment worked as a chief of staff in the deputy Battalion.

Third, most of the battalion commanders were from the Japanese army. Six out of nine commanders came from the Japanese army. They, also, were pilots. Two of them were founding members of the Sinuiju Flying Corps and one of them was a pilot of the Corps. Five of them were from the Pyongyang Academy and one of them was from the Central Politics Officer School. Six of them joined the air force in 1946. Two of them worked as instructors in the air regiment. Four of them were members of the Workers' Party and two of them were non-party members.

Origins of the regimental officers are as in the following. 42 percent of them were workers, 25 percent were officers, and 16 percent were poor peasants in a social classification aspect. 39.5 percent of them were poor peasants, 32.5 percent were workers, and 16 percent were officers in an ancestry aspect. 63 percent were higher than a middle school diploma. It shows that highly educated people were recruited to the air force as the regimental officers. 84 percent of the regimental officers were members of the Workers' Party and 16 percent were non-party members.

Keywords: Air Force of North Korea, political union system, flight division, fighter-bombers regiment, fighter regiment, Pyongyang Academy, North Korean Workers' Party, Sinuiju Flying Corps, people from the Japanese army, Korean War